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늘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늘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먼저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 오직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온 피를 다 주신 주님을 또 사랑하고, 또 주님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애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앞에 먼저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있습니다. 특별히 또 사도 바울, 그와 같이 저희들이 복음을 위한 마음으로 남은 생애 살아가도록 인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런 삶을 본받고,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위한 열정을 또 전달해서, 우리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꾼으로서 귀히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딤후4: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u>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u>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17 Pero el Señor estuvo a mi lado, y me dio fuerzas, para que por mí fuese cumplida la predicación, y que todos los gentiles oyesen. Así fui librado de la boca del león.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 집으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 전도에 대해 명령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행10:9-16)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육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한대 또 두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9 Al día siguiente, mientras ellos iban por el camino y se acercaban a la ciudad, Pedro subió a la azotea para orar, cerca de la hora sexta.
10 Y tuvo gran hambre, y quiso comer; pero mientras le preparaban algo, le sobrevino un éxtasis;
11 y vio el cielo abierto, y que descendía algo semejante a un gran lienzo, que atado de las cuatro puntas era bajado a la tierra;
12 en el cual había de todos los cuadrúpedos terrestres y reptiles y

aves del cielo.
[13] Y le vino una voz: Levántate, Pedro, mata y come.
[14] Entonces Pedro dijo: Señor, no; porque ninguna cosa común o inmunda he comido jamás.
[15] Volvió la voz a él la segunda vez: Lo que Dios limpió, no lo llames tú común.
[16] Esto se hizo tres veces; y aquel lienzo volvió a ser recogido en el cielo.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처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 집안이 구원받을 때 역사강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꺼렸는데,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를 명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가 메여서 땅에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모퉁이가 메어 있다는 것은, 동서남북 온 세상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종 더러운 짐승은, 온 세상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케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고넬료가 왔을 때에 기꺼이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을 보시면,

(행 11:17)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17] Si Dios, pues, les concedió también el mismo don que a nosotros que hemos creído en el Señor Jesucristo, ¿quién era yo que pudiese estorbar a Dios?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나와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미리 선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전도의 열정을 가졌지만,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특히 쓰임을 받았던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마음에 깨닫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딤후 4:17)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17] Pero el Señor estuvo a mi lado, y me dio fuerzas, para que por mí fuese cumplida la predicación, y que todos los gentiles oyesen. Así fui librado de la boca del león.

그래서 사도바울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강건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큰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고 구원받고 하면서 우리 역시도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만큼 위대한 사도도 없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바울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열정

사도행전 17장 23절 보면,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행17:23)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u>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u>
[23] porque pasando y mirando vuestros santuarios, hallé también un altar en el cual estaba esta inscripción: AL DIOS NO CONOCIDO. Al que vosotros adoráis, pues, sin conocerle, es a quien yo os anuncio.

사도바울은 아테네에서도 전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고 신상을 보고,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겠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알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아는대로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다, 그 마음

속에 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19:8-10) 바울이 <u>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u>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u>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하매</u>

8 Y entrando Pablo en la sinagoga, habló con denuedo por espacio de tres meses, discutiendo y persuadiendo acerca del reino de Dios.
9 Pero endureciéndose algunos y no creyendo, maldiciendo el Camino delante de la multitud, se apartó Pablo de ellos y separó a los discípulos, discutiendo cada día en la escuela de uno llamado Tiranno.
10 Así continuó por espacio de dos años, de manera que todos los que habitaban en Asia, judíos y griegos, oyeron la palabra del Señor Jesús.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도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합니다. 두해 동안을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7-8절을 보면

(행20:7-8)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u>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u>

7 El primer día de la semana, reunidos los discípulos para partir el pan, Pablo les enseñaba, habiendo de salir al día siguiente; y alargó el discurso hasta la medianoche.
8 Y había muchas lámparas en el aposento alto donde estaban reunidos;

사도바울이 들르는 지역마다 형제자매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행28:23) 바울이 <u>아침부터 저녁까지</u> 강론하여

23 Y habiéndole señalado un día, vinieron a él muchos a la posada, a los cuales les declaraba y les testificaba el reino de Dios desde la mañana hasta la tarde, persuadiéndoles acerca de Jesús, tanto por la ley de Moisés como por los profetas.

물론 중간에 식사도 했겠지만, 쉼없이 하루종일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행20:20,26-27) <u>꺼리낌 없이</u>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 이는 <u>내가 꺼리지 않고</u> 하나님의 뜻을 <u>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u>

20 y cómo nada que fuese útil he rehuido de anunciaros y enseñaros, públicamente y por las casas,
26 Por tanto, yo os protesto en el día de hoy, que estoy limpio de la sangre de todos;
27 porque no he rehuido anunciaros todo el consejo de Dios.

밑에 프린트에 보시면, 내용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하신 것은 가르쳐야 할 것을 다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것은 들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하지 않는 것은 전도자의 책임이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너희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리낌이 없고, 이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영혼이 멸망한다 할찌라도, 나는 그 영혼이 구원 받기 위한 말씀들을 다 전해줬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전해줬기 때문에 이제 구원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들은 사람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거죠. 거리낌 없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망설이지 않고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큰 열정을 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 그의 일생을 보더라도,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프린트물 보시면, “AD 34년(33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후 AD 67/68년(67세) 로마에서 참수될 때까지 그의 30여 년간의 복음을 위한 생애는 3차에 걸친 전도여행과 로마로의 압송을 포함하여 전체 <u>20,000 km 이상</u>의 거리를 달려간 열정적인 삶이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과 로마로까지 압송되는 모든 거리를 합산해보면 20,000km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리고 배를 타고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롬10: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5 ¿Y cómo predicarán si no fueren enviados? Como está escrito: !!Cuán hermosos son los pies de los que anuncian la paz, de los que anuncian buenas nuevas!

바로 사도바울의 발이 누구보다 더 아름다운 발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28절을 보면 복음을 위해 달려간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후11:23-28) (23)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26)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3 ¿Son ministros de Cristo? (Como si estuviera loco hablo.) Yo más; en trabajos más abundante; en azotes sin número; en cárceles más; en peligros de muerte muchas veces.
24 De los judíos cinco veces he recibido cuarenta azotes menos uno.
25 Tres veces he sido azotado con varas; una vez apedreado; tres veces he padecido naufragio; una noche y un día he estado como náufrago en alta mar;
26 en caminos muchas veces; en peligros de ríos, peligros de ladrones, peligros de los de mi nación, peligros de los gentiles, peligros en la ciudad, peligros en el desierto, peligros en el mar, peligros entre falsos hermanos;
27 en trabajo y fatiga, en muchos desvelos, en hambre y sed, en muchos ayunos, en frío y en desnudez;
28 y además de otras cosas, lo que sobre mí se agolpa cada día, la preocupación por todas las iglesias.

육신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구원 받은 형제자매들,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늘 염려하는 마음, 그로 인해서 고이장한 마음의 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미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2.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님께 드렸다.

(행 15:25)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25 nos ha parecido bien, habiendo llegado a un acuerdo, elegir varones y enviarlos a vosotros con nuestros amados Bernabé y Pablo,

이렇게 사도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다고 되어 있죠. 주위 사람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소개한 겁니다. 자기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행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 Pero de ninguna cosa hago caso, ni estimo preciosa mi vida para mí mismo, con tal que acabe mi carrera con gozo, y el ministerio que recibí del Señor Jesús, para dar testimonio del evangelio de la gracia de Dios.

그래서, 내 생명을 바치는 데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

다.

(고후1:8-9)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8] Porque hermanos, no queremos que ignoréis acerca de nuestra tribulación que nos sobrevino en Asia; pues fuimos abrumados sobremanera más allá de nuestras fuerzas, de tal modo que aun perdimos la esperanza de conservar la vida.
[9] Pero tuvimos en nosotros mismos sentencia de muerte, para que no confiásemos en nosotros mismos, sino en Dios que resucita a los muertos;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전 2:2)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2] pues habiendo antes padecido y sido ultrajados en Filipos, como sabéis, tuvimos denuedo en nuestro Dios para anunciaros el evangelio de Dios en medio de gran oposición.

빌립보에서는 저 많은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옷이 벗겨지고 메와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조차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았단 것은 이미 하나님 복음을 위해 목숨 받치기로 정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편안한 중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편안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자리를 원하지만 바울은 환란과 고난이 있고 죽음을 기다리는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주님을 위해 현재 살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또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다면, 우리가 아프리카로 보내지던지, 아니면 그 어떤 환란과 역경이 기다리는 곳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서슴치 않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오를 했지만 막상 우리 삶속에 많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죽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두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한 담대한 복음전도

사도행전 16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행16: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Después llegó a Derbe y a Listra; y he aquí, había allí cierto discípulo llamado Timoteo, hijo de una mujer judía creyente, pero de padre griego;

여기서, 프린트물을 같이 보겠습니다.
" 본 절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더베와 루스다라에도 이르매'라고 기록했다. 이는 루스드라를 강조한 것이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하마터면 바나바와 바울이 '쓰스와 허메'로 숭배를 받을 뻔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 바울이 돌에 맞아 성 밖에 내쳐졌던 곳이다. 그냥 돌에 맞은 정도가 아니라 죽은 것과 같이 되었던 곳이다.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가해온다면 그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픈 생각이 들겠는가? 전도는 고사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큰 박해를 받았을 때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생길수도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외면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곳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찾아간 것이다. 이는 두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한 전도의 모습이다. 자신에게 죽음을 맛보게 할 정도로 박해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

그래서 이미 복음을 위해 죽음을 각오했던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해 이방인 전도를 할 때 많은 두려움과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서신은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을 보면,

(엡6:20) 이 일을 위하여 <u>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u>

[20] por el cual soy embajador en cadenas; que con denuedo hable de él, como debo hablar.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했습니다.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어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그것도 각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1: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u>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u>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20] conforme a mi anhelo y esperanza de que en nada seré avergonzado; antes bien con toda confianza, como siempre, ahora también será magnificado Cristo en mi cuerpo, o por vida o por muerte.

빌립보서도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적에도 보면,

(행26:29)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아니라 오늘 네 말을 듣는 <u>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u> 하니라

[29] Y Pablo dijo: !!Quisiera Dios que por poco o por mucho, no solamente tú, sino también todos los que hoy me oyen, fueseis hechos tales cual yo soy, excepto estas cadenas!

현재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쇠사슬에 매어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자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사도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결박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죄의 노예였고, 지옥을 향해 끌려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결박된 상황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들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결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 앞에 불쌍히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사도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밍야 20장 7-10절을 보면 예레미아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절.

(렘20:7-10) (7)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 <u>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u> (10)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7] Me sedujiste, oh Jehová, y fui seducido; más fuerte fuiste que yo, y me venciste; cada día he sido escarnecido, cada cual se burla de mí.
[8] Porque cuantas veces hablo, doy voces, grito: Violencia y destrucción; porque la palabra de Jehová me ha sido para afrenta y escarnio cada día.
[9] Y dije: No me acordaré más de él, ni hablaré más en su nombre; no obstante, había en mi corazón como un fuego ardiente metido en mis huesos; traté de sufrirlo, y no pude.
[10] Porque oí la murmuración de muchos, temor de todas partes: Denunciad, denunciémosle. Todos mis amigos miraban si claudicaría. Quizá se engañará, decían, y prevaleceremos contra él, y tomaremos de él nuestra venganza.

“ 예레미야는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백성들의 회개를 외쳤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종일토록 조롱을 받았다.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예레미야를 협박하며 예레미야를 향해 조롱과 저주를 퍼부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입을 닫으면 예레미야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진정을 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백성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이다. ”

사도바울도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인해,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모든 두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했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겁니다.

4.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열정

①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재물과 자기 자신까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고후12:15) <u>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u>

15 Y yo con el mayor placer gastaré lo mío, y aun yo mismo me gastaré del todo por amor de vuestras almas, aunque amándoos más, sea amado menos.

재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자기의 모든 힘과 노력,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살전2:8)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u>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u>

8 Tan grande es nuestro afecto por vosotros, que hubiéramos querido entregaros no sólo el evangelio de Dios, sino también nuestras propias vidas; porque habéis llegado a sernos muy queridos.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바울도 이방인들을 위해 목숨까지 주고자 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고후2:4)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것이 아니요 <u>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u>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4 Porque por la mucha tribulación y angustia del corazón os escribí con muchas lágrimas, no para que fueseis contristados, sino para que supieseis cuán grande es el amor que os tengo.

그 사랑은 마음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20:31)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u>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u> 것을 기억하라

31 Por tanto, velad, acordándoos que por tres años, de noche y de día, no he cesado de amonestar con lágrimas a cada uno.

에베소 성도들을 돌아볼 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은거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었고요.

(고후5:14-15) <u>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u> -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4 Porque el amor de Cristo nos constriñe, pensando esto: que si uno murió por todos, luego todos murieron;

15 y por todos murió, para que los que viven, ya no vivan para sí, sino para aquel que murió y resucitó por ellos.

이 사랑은 처음부터 사도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부터 변화됐던 겁니다. 먼저 주님의 끝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줄 수 있던 겁니다.

(딤전1:12-13) (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2 Doy gracias al que me fortaleció, a Cristo Jesús nuestro Señor, porque me tuvo por fiel, poniéndome en el ministerio,
13 habiendo yo sido antes blasfemo, perseguidor e injuriador; mas fui recibido a misericordia porque lo hice por ignorancia, en incredulidad.

자기를 이방인으 사도로 삼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개 직분을 맡기셨고, 그것은 정말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나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 직분도 맡겨 주시고, 무엇보다 그 영혼을 구원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속에 먼저 자기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던 겁니다.

(고전15:10)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 Pero por la gracia de Dios soy lo que soy; y su gracia no ha sido en vano para conmigo, antes he trabajado más que todos ellos; pero no yo, sino la gracia de Dios conmigo.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공급됐기 때문에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사랑이 식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던 것입니다.

② 영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수고가 있었다.

(고전9:22)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22 Me he hecho débil a los débiles, para ganar a los débiles; a todos me he hecho de todo, para que de todos modos salve a algunos.

결코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롬14: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13 Así que, ya no nos juzguemos más los unos a los otros, sino más bien decidid no poner tropiezo u ocasión de caer al hermano.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고후11:29)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29 ¿Quién enferma, y yo no enfermo? ¿A quién se le hace tropezar, y yo no me indigno?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읽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해주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갈4: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19 Hijitos míos, por quienes vuelvo a sufrir dolores de parto, hasta que Cristo sea formado en vosotros,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수고가 거의 최고의 고통이라 할 수 있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은 이후 주님의 형상을 담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각 사람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골1: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 a quien anunciamos, amonestando a todo hombre, y enseñando a todo hombre en toda sabiduría, a fin de presentar perfecto en Cristo Jesús a todo hombre;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믿음의 성장 단계에 맞게 세심하게 살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이런 말씀들을 깨우치고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세심하게 살피고, 그 영혼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계속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주고 인도해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교사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려면 부지런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보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5.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바울의 전도

바울의 전도는 자기 힘과 의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도, 담대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열심들이 있었지만, 그 열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도할 곳을 인도해주셨음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행16:6-10)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 갔는데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6] Y atravesando Frigia y la provincia de Galacia, les fue prohibido por el Espíritu Santo hablar la palabra en Asia;
[7] y cuando llegaron a Misia, intentaron ir a Bitinia, pero el Espíritu no se lo permitió.
[8] Y pasando junto a Misia, descendieron a Troas.
[9] Y se le mostró a Pablo una visión de noche: un varón macedonio estaba en pie, rogándole y diciendo: Pasa a Macedonia y ayúdanos.
[10] Cuando vio la visión, en seguida procuramos partir para Macedonia, dando por cierto que Dios nos llamaba para que les anunciásemos el evangelio.

아시아에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유럽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성령께서 막으셨다. 성령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바울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막으셨던 것 갔다. 다만 ‘못하게 하시거늘’은 ‘반대하다, 금지하다’라는 매우 강한 의미이므로 당시 성령께서는 바울이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아시아 전도를 막으셨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아예 아시아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니다. 이후 3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인 에베소에 약 3년 동안 체류하면서 전도하도록 하셨다. (행19:8-10)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막으신 이유는 유럽 전도를 위한 성령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셨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제1차 전도여행지를 방문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고 전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

그런데, 더 넓은 지역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세계선교를 목표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교회가 182개 교회인데, 해외교회가 200개를 넘어 훨씬 더 많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석에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전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렘10:23)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23] Conozco, oh Jehová, que el hombre no es señor de su camino, ni del hombre que camina es el ordenar sus pasos.

우리 역시도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맞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역사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결국 그 전도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도 실라와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이들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빌립보에서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 놀랐죠. 그리고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 했을 때, 사도바울이 이를 말리면서, 간수장이 구원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지역에 구원 받는 역사가 크게 열렸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전도가 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다는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행16:25-26) (25)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26) <u>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u>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5] Pero a medianoche, orando Pablo y Silas, cantaban himnos a Dios; y los presos los oían.

[26] Entonces sobrevino de repente un gran terremoto, de tal manera que los cimientos de la cárcel se sacudían; y al instante se abrieron todas las puertas, y las cadenas de todos se soltaron.

고린도전서 2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전2:4-5) (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u>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u>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u>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u>

[4] y ni mi palabra ni mi predicación fue con palabras persuasivas de humana sabiduría, sino con demostración del Espíritu y de poder,

[5] para que vuestra fe no esté fundada en la sabiduría de los hombres, sino en el poder de Dios.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의 지혜와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항상 기도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방에,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며, 성령을 통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심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이 교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교회 속에서 성장하고, 교회와 함께 쓰임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딤후4:7-8) (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7] He peleado la buena batalla, he acabado la carrera, he guardado la fe.

[8] Por lo demás, me está guardada la corona de justicia, la cual me dará el Señor, juez justo, en aquel día; y no sólo a mí, sino también a todos los que aman su venida.

우리 각자는 다 주님 만날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사도바울의 열정을 본받아, 우리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 받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실 상급을 위해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열심히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인 저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계획하시고, 또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도바울을 세우셔서 이방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힘 있게 전함으로 인해, 저희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구원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저희도 알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귀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가 미쳐 다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힘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도바울과 함께 하셨고 역사해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갈수록 전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사도바울과 같은 열정을 주셔서 열정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향해서, 이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의 손길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